

사회

# 생명 앓아간 엽기 훈계

### “중1 아들 버릇 줌” 어머니가 체육관장에 부탁 4명이 번갈아 구타... 다음날 통증 호소 후 숨겨 병원선 ‘병사’ 진단서 발급... 화장 두달만에 들통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려 노심초사했던 어머니의 노력이 되레 비극을 불러왔다. 잦은 가솔로 마음 고생을 시키던 아들의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주변 사람에게 훈계를 부탁했으나 상식 밖의 폭행으로 불상사가 일어났다.

◇사건 개요=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가솔 청소년을 훈계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광주 A체육관 전직 관장 B(32)씨 등 4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5월 25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A

체육관에서 광주 모 중학교 1년 C(13)군의 엉덩이·허벅지·가슴 등을 주먹·발·목검(길이 2m)·단 봉(길이 50cm)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현지 관장이 C군을 병으로 때린 데 이어, B씨가 주먹과 발로 C군을 구타했으며, 사법 2명은 차례로 “대련을 해 나를 쓰러뜨리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C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군 어머니(38)의 부탁을 받고 훈계한다며 5~10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C군을 때린 것으로 확인

됐다. C군은 집에 도착한 뒤 복부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의 가솔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C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7일 만에 집에 돌아오자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 지인은 전직 특공무술 관장인 남편 B씨에게 부탁해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제의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어떻게 밝혀졌나=C군의 어머니는 병원측으로부터 아들이 병사했다는 진단서(다발성 장기부전)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화장했다.

‘병사’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는 수개월이다. 10년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 둘을 키워온 C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골

을 보관해 오던 중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 등과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C군의 사망 경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C군의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경찰에 사건 내용을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C군의 응급 처치기록과 지병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B씨 등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C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의 어머니에 대해 폭행 교사혐의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서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현직 도의원 자녀의 불법 채용 의혹(광주일보 7월 21일 6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와 관련 위조된 경력증명서가 실제 확인된 만큼 이를 강력명령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조취를 강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진흥원에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곧 열어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 사법 당국에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김기훈 전 원장의 자살 이후 진흥원과 관련된 각종 인사 청탁·압력 파문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진흥원에 직접 감사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인력채용과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진흥원 인사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의 급여자급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도 경력증명의 위조와 채용과정에서 불법성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경찰이 열사병으로 쓰러진 노인 구조

**보성서 선용수·황연식 경사**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에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순찰중이던 경찰관들이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노인을 구조했다.

21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보성서 읍내파출소 소속 선용수·황연식 경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보성을 용문리 한 장례식장 앞에 주차된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일모(67)씨가 머리를 쪽 속인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선 경사 등은 용광로처럼 달궂진 승용차에서 입씨를 끌어내린 뒤 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했다. 입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이 되돌아왔다.

입씨는 이날 무더운 날씨에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열사병 증세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 경사 등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떡 케익 만드는 한·미 대학생들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문화교류 모임인 '제4회 한미학생회의' 참가자들이 21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떡 케익을 만들며 한국의 전통음식 조리법을 배우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망치로 이웃집 문 부수고 경찰에 행패

**서부경찰, 40대 구속영장**

수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인형뽑기 기계 사업을 해 번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던 홍모(48·광주시 서구 삼촌동)씨.

지난 21일 새벽 3시30분께 홀로 자신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홍씨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진 데다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

급기야 홍씨는 온 집안을 뒤져 망치와 톱을 찾아 양손에 쥔 뒤 원룸 밖으로 뛰쳐 나갔다. 무엇인가 마구 부수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망치와 톱을 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류모(31)씨의 매그너스 승용차.

승용차를 부순 홍씨는 자신의 집

## 500억대 도박 사이트 일당 검거

### 광주경찰, 40억 이득 챙긴 11명 붙잡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 억원 상당의 사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최대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P(33)씨를 도박계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 K(3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2008년 7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A오피스텔 등 3곳에서 공인받은 스포츠 토도와 유사한 형태로 홍콩·일본 등에 서버를 둔 사실 불법 스포츠 토도 사이트 ‘블루벳’ 등을 개설한 뒤 점조직 형태로 521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외 축

에서 당게는 1000만원을 주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사고 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종목의 승·패를 맞추는 방식으로 한 게임당 적게는 5000원에서 당게는 100만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ID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제한 배팅이 가능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인터넷으로 58개의 대표 통장을 구입하는 한편, 도박장 운영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7억2000만원을 환수한 뒤 나머지 33억원에 대해서는 추징할 방침이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 시국선언 교사 징계 미룬

###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유독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평가시행 계획을 수립, 교과부가 3차례 시정을 명령하고 지난달 17일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 계획은 교장·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경영을 평가할 기회를 박탈할 우려를 낳았고 반드시 계량형 평가를 포함토록 했는데도 서술형 평가만 하도록 했다.

연철뉴스

#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7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b>7급 종합반</b> 8월 14일~16일 3일간 공과: 08:00~12:00, 13:00~17:00 민과: 08:00~12:00, 13:00~17:00	<b>9급 종합반</b> 8월 14일~16일 3일간 공과: 08:00~12:00, 13:00~17:00 민과: 08:00~12:00, 13:00~17:00	<b>법원서기보</b> 8월 14일~16일 3일간 공과: 08:00~12:00, 13:00~17:00 민과: 08:00~12:00, 13:00~17:00	<b>지방소방직(전원)</b> 8월 14일~16일 3일간 공과: 08:00~12:00, 13:00~17:00 민과: 08:00~12:00, 13:00~17:00	<b>평민 '강력민과'</b> 8월 14일~16일 3일간 공과: 08:00~12:00, 13:00~17:00 민과: 08:00~12:00, 13:00~17:00	<b>7·9급 경찰직</b> 8월 14일~16일 3일간 공과: 08:00~12:00, 13:00~17:00 민과: 08:00~12:00, 13:00~17:00	<b>9급 야간반</b> 8월 14일~16일 3일간 공과: 08:00~12:00, 13:00~17:00 민과: 08:00~12:00, 13:00~17:00	<b>농업직/기술직</b> 8월 14일~16일 3일간 공과: 08:00~12:00, 13:00~17:00 민과: 08:00~12:00, 13:00~17:00
---	---	--	--	--	---	---	--

### 호남유일의 합격전문반 개설

## 일반직 전환특채 [졸환]

### 7월 23일 첫진도 개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전문공무원 1천명 대폭증원

## 사회복지직 특별반 모집 8월 1일

###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평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